

Japan Weekly Digest

2012. 11. 17 ~ 2012. 11. 23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일본의 FTA 전략, 새로운 국면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일본정부, 미얀마에 500억엔 규모의 엔 차관 공여
- 중소기업, M&A나 외부인력 활용으로 후계자 부족난에 대응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① 주간 경제 초점 : 일본의 FTA 전략, 새로운 국면

□ 한·중·일 FTA, RCEP 교섭 개시에 합의

- 일본이 아태지역에서 추진하는 FTA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외에 한국·중국과의 FTA와, ASEAN과 한·중·일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「동아시아지역포괄적경제연대(RCEP)가 있음
- 한·중·일 FTA와 RCEP 관계국들이 20일 교섭개시를 선언하고 내년 초기 교섭에 들어가기로 합의
 - 일본의 총수출에서 점하는 한국과 중국의 비율은 30%, RCEP 15개국은 48%에 달함
 - 그러나 신흥국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RCEP의 무역자유화율을 목표치인 90%정도로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

□ 한·중·일 FTA는 내년 봄에나 교섭개시

-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도, 한국과는 독도 문제를 안고 있어 한·중·일 FTA도 순탄치만은 않을 듯
 - 20일 3개국의 통상장관들이 교섭개시를 선언했으나 내년 봄까지는 교섭을 개시하지 않을 예정임
 - 3개국은 영토문제와 FTA를 분리시켜 추진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향방은 불투명
- 국내산업의 보호·육성을 목표로 하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이 요구하는 공업분야 등의 시장개방에 어느 정도까지 응할 것인가가 미지수임
 - 일본기업은 관세 외에 현지생산에 따른 투자나 지적재산권 등의 룰 제정도 주시하고 있으나, 분야를 넓히게 되면 교섭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

□ TPP와 RCEP를 동시 추진

- 일본은 목적이나 과제를 달리하면서 TPP를 중심축으로 동시 병행적으로 교섭을 추진할 방침으로 이들 각 FTA부터 얻을 수 있는 실리를 따져 교섭전략을 짜고 있음

- 노다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TPP를 추진하는 자세로 이해를 구했으나, 미국 측은 총선을 앞둔 일본의 정국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논의에는 응하지 않음
- 다만 TPP에 관한 사전협의를 가속화하는 데 의견의 일치.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시장개방문제에 관한 미·일간 이견으로 조기타결이 어려워, 양국간 협의기관을 설치하는 안도 나옴.
- 일본으로서 TPP는 「노다 총리가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하는」 FTA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FTA임
- 관세를 원칙 폐지하는데다, 투자나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도 공통적인 룰 제정을 목표로 한 높은 수준의 FTA이기 때문이며, 동맹국인 미국이 참가하는 유일한 FTA이기도 하여 조기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음

□ TPP를 중심축으로 한 아시아에서의 주도권 장악

- 중의원 선거에서는 각 당이 아시아의 경제성장수요를 여하히 흡수할 것인가를 놓고 정책대결을 벌이고 있음
- TPP교섭 참가 시비에 주목이 모아지고 있는데, TPP를 지렛대로 아시아를 무대로 한 경제외교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음
- 와세다 대학의 우라다(浦田秀次郎) 교수에 의하면, 일본에 필요한 것은 시장개방과 구조개혁이며 이에 TPP는 좋은 기회라는 것

□ 중의원 해산, 통상정책에도 영향

- 그러나 11월 16일 중의원해산으로 일본의 통상정책이 소강상태에 빠짐. 노다 정권하에서 농업분야 등 국내조정은 진척이 없는 가운데, 교섭상대국들도 일본을 경시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은 전하고 있음
- 선거를 앞두고 자유무역 추진파와 반대파의 생각이 교착된 가운데 중의원선거까지는 사실상 논의가 동결되고 있음.
- 중의원 해산 후에도 대내외적으로 통상교섭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, 사령탑 부재의 정치공백이 계속됨에 따라 정치적 판단이나 사전공작이 필요한 안건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음

② 산업통상전략

□ 일본정부, 미얀마에 500억엔 규모의 엔 차관 공여

- 일본정부가 미얀마에 500억엔 규모의 엔 차관을 공여키로 하였는데, 일본의 엔 차관 재개는 27년만으로 미얀마 경제특구의 인프라 정비와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
- 500억엔의 엔 차관은 2011년도 공여금액으로 비교하면 2,000억을 넘는 베트남, 인도에 이어 수백억엔의 필리핀, 방글라데쉬, 스리랑카 등과 비슷한 규모
- 엔 차관의 대상은 양곤 근교에 위치한 티라와 경제특구의 주변 인프라개발, 화력발전소 보수, 14개 지방자치체의 생활기반 인프라 정비 등 3개 사업임
 - 특히 티라와 특구에는 미쓰비시상사, 마루베니, 스미토모 상사 등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일본의 기업연합이 사업화조사를 개시하는 등 민·관 공동으로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
- 일본의 대미얀마 지원의 목적은 2가지임
 - 하나는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임
 - 또 하나는 미얀마에서의 사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을 비롯한 외국자본들은 3개 분야에 주목하고 있음
 - 첫째는 인프라개발로, 미얀마는 전력이나 교통, 통신 등의 설비가 취약하여 대형 비즈니스가 잠재되어 있음
 - 둘째는 저비용의 생산기지 확보로,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변국의 임금인상상승함에 따라 미얀마가 노동집약적 산업의 근거지가 될 수 있음
 - 셋째는 소비시장 개척으로, 미얀마의 인구는 6,200만으로 인접국인 태국에 필적. 외자도입을 지렛대로 한 경제성장으로 향후 내수확대가 기대되고 있어 미국의 코카콜라, 펩시가 현지기업과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외에 일본의 로손도 입점준비를 하고 있음
- 한편 미국도 이달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사실상 해제함. 따라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미얀마와의 관계강화에 일본과 미국이 연대를 추진하게 되는 셈임

□ 중소기업, M&A나 외부인력 활용으로 후계자 부족난에 대응

- 일본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음. 친족에게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라, M&A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사에 경영을 위탁하거나 외부 전문인력을 등용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음
- 특히 단카이세대(일본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7년~1949년 사이에 베이비붐으로 태어난 세대)경영자들의 은퇴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후계자 문제는 종래 이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
 - 경영의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지의 여부가 중소기업 활성화에 관건이 되고 있음
- 제국 데이터뱅크에 의하면, 연매출 100억엔 미만 39만 7,000사중 후계자가 없는 기업은 약 65%에 이름
 - 금년부터 단카이 세대가 65세에 이르기 시작, 은퇴하는 창업자가 급증. 후계자가 없으면 폐업의 형태로 자산처분이나 종업원의 해고가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음
- 중소기업전문 M&A중개사인 일본 M&A센터의 2012년 3월기 중개성약건수는 전기대비 24%가 증가한 194건으로 과거최고를 기록
- 사업승계를 위해 국가의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
 -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「산업활력재생특별법」에 의거하여 지금까지 7개 도·부·현에 사업승계지원센터가 설치됨
 - 동 센터는 영세기업이나 개인사업주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, 승계처 물색에 필요한 기업개요서 등을 무료로 작성해 줌
- 승계에 따른 개인보증이나 주식매입자금 부담이 과제
 - 창업자의 친족 외에 회사를 승계토록 하는 경우는 널리 인재를 구할 수 있는 이점은 있으나 후계 사장이 회사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개인보증을 서야 되는 경우가 많음
 - 한편, 창업자의 보유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자금부담도 크고, 타사에 사업을 양도하는 M&A형 승계의 경우에는 창업사장이 창업자이익을 확보하기 쉬우나, 경영실적이 나쁘면 매수기업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음

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*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JT	2012.11.17	담배	이집트/나하라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가액 200억엔
OSG	2012.11.17	절삭공구	한국	직접투자/한국의 신공장에 무 인생산라인 도입, 투자규모 10억엔~15억엔
일본정부	2012.11.18	인프라	미얀마	엔차관 공여/ 투자규모 500억엔
이토추상사	2012.11.19	발전소 건설	러시아	수주/열전병급 병설, 수주규모 400억엔~500억엔
코니카미놀카 홀딩스	2012.11.19	인쇄	영국/차터하우 스PM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가액 약 128억엔
야스카와전기	2012.11.21	기기제어장 치	독일/비바	직접투자/기업매수, 주식의 50%취득
카네마츠	2012.11.21	식품가공	인도네시아/티 모리그룹	자본제휴/합작회사 설립, 출자비율 60%
미쓰이부동산	2012.11.22	상업시설 개 발	말레이시아/말 레이시아공 항 홀딩스	자본제휴/합작회사 설립, 출자비율 70%
아사히유기재 공업	2012.11.22	주물용재료	인도	자본제휴/현지기업과 합작으 로 공장 신설
미즈호코퍼레 이트 은행	2012.11.23	금융	중국	융자/대만기업과 협조융자, 융자규모 약 330억엔
동경해상홀딩스	2012.11.23	보험	중국/중국인민 보험집단	자본제휴/출자비율 0.2%, 투자규모 약 40억엔

*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4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(1) 『제21회 한일건설경제워크숍/건설투자전망/건설산업동향』 일본건설경제연구소, 11월17일

*출처:http://www.rice.or.jp/regular_report/pdf/monthly/Month285.pdf

(2) 『2012년 에너지백서』 자원에너지청, 11월19일

*출처:<http://www.enecho.meti.go.jp/topics/hakusho/2012/index.htm>

(3) 『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금후 일중경제관계』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, 11월19일

*출처:http://www.canon-igs.org/column/network/20121116_1650.html

(4) 『성숙산업의 재건과 일본산업의 부활』 경제산업연구소, 11월22일

*출처:<http://www.rieti.go.jp/jp/events/bbl/12102301.pdf>